

‘내우외환’ 금호타이어

적자 가중·신규차입 난항에 경영난...12월 급여 지연

노조, 부채감면 요구·구조조정 반대 상경 투쟁 예고

계속된 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금호타이어가 급기야 올해 12월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하는 등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와중에도 금호타이어 노조가 서울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조합원들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부분 파업을 결정하는 등 회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P-플랜 낭떠러지 위기...12월 급여 무기한 연기=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7일자 김중호 회장 명의로 ‘12월 급여와 4분기 제수당 등 지급을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내 공고를 냈다. 지속적 영업 적자로 회사 운영을 위해서 신규 차입이 필요한데 회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마저도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채권단에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1개월 연장한 것은 회사가

상환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자율협약 약정에 따라 1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준 것을 뿐 현재의 자금난 해소와는 무관하다”며 “1월 28일 이후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는 채권단 전체의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갈수록 구조조정과 법정관리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월에도 보유 현금이 고갈될 처지였으나 당시 비공식적으로 채권단에 당좌대일에서 자금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해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7월 기준 금호타이어의 전체 월 급여액은 140억원이다. 또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매월 4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호타이어는 올 1~9월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640억원으로 분기당 이자지급만 320억원에 달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힘들다. 일부

거래처는 회사가 P-플랜(사전회생계획책도 초단기 법정관리)이나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거래를 끊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총 200여 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처지에 놓여 2014년 워크아웃 졸업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고통분담 동참...“노·사간 합의 생존 가능성 높아야”=채권단의 경영정상화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은 29일 채권단과 정부에 부채 감면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상경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상경투쟁과는 별도로 29일 당일 공장별로 조합원들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전면 금지했다.

회사의 급여 지급 지연에도 노조의 대응은 강경하다. 상경투쟁 후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고소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워크아웃 직전

인 2009년 12월~2010년 4월에 지연된 급여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펴는 것은 사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생각이 없고, 우선적으로는 채권단과 정부를 압박해 회사가 제시한 재구안을 무력화 시키고 구조조정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회생을 위해 금호타이어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또 기아자동차의 부분파업까지 겹쳐 지역경제 전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 노조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도 굵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이 위기상황에서 단기간에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채권단과 정부의 지원 또한 노조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만큼 노·사간 합의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7.49 (+30.82) ↓ 금리 (국고채 3년) 2.13% (-0.02)

↑ 코스닥 798.42 (+6.47) ↓ 환율 (USD) 1070.50원 (-3.60)

국산 김 해외서 인기폭발

올 수출 5억달러 돌파...조미김 수요 급증 전년비 43% ↑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시장 여인홍)는 28일 올해 김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김의 수출액은 5억 달러를 넘어선데다 지난해 3억5300만 달러보다 43% 증가했다.

김은 국내 생산량의 약 40% 정도가 수출되고,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가공·수출되면서 부가가치 전체가 국내

에 귀속된다. 농수산물 전체 수출품목 중 김은, 참치에 이어 3위의 수출품목으로 그 가치가 더 크다.

aT는 김 수출 성장이 원료 김을 생산하는 원료공급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으로 제한돼 있고, 최근 해외에서 한국 조미 김을 간식용으로 찾으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정부, 관련기관 등의 지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 살아난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4.5%·백화점 5.7%·마트 3.5% ↑

지난 11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율이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7% 감소했고 전월 대비는 보험세를 유지했다.

광공업 생산분야 중 금속가공, 식료품, 비금속광물 등 증가했으나 자동차,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1차금속은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2.7% 하락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금속가공, 식료품, 음료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1차금속,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등이 하락해 1.9%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음료, 의료정밀광학 등은 감소하고 자동차, 전기장비, 1차금속 등이 증가해 12.1% 증가했다.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7.4로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5.7%, 대형마트는 3.5% 각각 증가했다.

11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식료품, 가구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1차금속 등이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5.5% 감소했고 전월 대비 7.8% 줄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석유정제, 화학제품, 의약품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1차금속, 기계장비 등이 줄어 4.0%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석유정제, 종이제품, 비금속광물 등은 감소한 반면 화학제품, 1차금속, 식료품 등이 증가해 8.9% 늘어났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4.5로 전년동월 대비 9.2% 증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금호동 행복아동센터 희망공부방 37호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7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행복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37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에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37호점으로 선정된 행복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 등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설립한지 10년이 넘어 센터 입구 현관문이 노후화되었고 책상 역시 오래되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은행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었으며,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간식을 준비해 아동들과 함께 새롭게 꾸민 공부방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재호기자 lion@



기업 경기전망 새해에도 부정적

600대 기업 BSI 내년 1월 96.5...20개월 연속 100 밑돌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시각이 새해 연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전망치는 96.5를 기록, 2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6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31개월 연속 기준치 아래에서 맴돌던 이후 가장 기록이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작년 11월 89.9로 최저 수준이던 BSI 전망치는 지난 6월 99.1까지 상승한 뒤로 다시

떨어져 내내 9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런 이유로 내년에 글로벌 경기 관련 부정적 요소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 전망치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95.8)은 전월(93.2)보다 올랐으나 비제조업(97.2)은 전월(100.5)보다 하락했다. 또 내수(96.7), 수출(96.5), 투자(97.5),

자금사정(95.2), 재고(100.3), 고용(99.2), 채산성(97.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12월 BSI 실적치는 97.2로, 역시 32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하며 부진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2.6)이 전월(92.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비제조업(102.8)은 전월(95.2)에 비해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내수(101.8), 투자(101.5), 고용(100.8)이 호조를 기록한 반면 수출(96.0), 자금사정(99.7), 재고(102.5), 채산성(96.5)은 부진했다. /연합뉴스

서울서 광주 스마트벤처캠퍼스 투자설명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최근 서울 역삼 타임스타운에서 ‘광주 스마트벤처캠퍼스 투자설명회(IR)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벤처 IR 캠프는 올 한해 광주 스마트벤처캠퍼스에 입교한 29팀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IR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부터 멘토링, 심화코칭을 통해

데모데이에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과 투자자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됐다.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R 캠프 기간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팀)의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또 졸업기업의 우수사례 강연, 투자자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점 646㎡(전) 국제양공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